

# 페낭

페낭 그대로의 페낭





# 목록

매력 넘치는 페낭	2
문화유산의 천국	4
페낭이라는 곳	6
세계와 연결된 페낭	8
페낭 그대로의 페낭	10
소중한 문화유산	12
활기찬 문화	14
매력적인 전통	16
탐나는 미식	18
푸른 자연	20
폭넓은 장소 선택	22
빛나는 식민 역사	24
화려한 정원	26
문화유산의 매력	28
고급 리조트	30
컨벤션의 집합점	32
도시의 우아함	34
PCEB 에 대하여	36

# 매력 넘치는 페낭





말레이시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페낭주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풍부하면서도 번영을 누리는 현대적 도시이다.

조화를 이룬 전통과 현대의 융합은 페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와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 되는 이유이다. 과감한 미식 문화, 매력적인 식민 시대 건축 양식,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명소까지, 아시아 최고의 특징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페낭의 독특한 건축 양식, 인상적인 요리, 다채로운 문화 및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색다른 아시아를 체험해 본다.

위스마 압초이  
© Norlman Lo

# 문화유산의 천국

블루 맨션  
© Sherwynd Rylan Kessle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 유산 협약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수세대에 걸쳐 같이 어울려 살아 온 조지타운이야말로 아시아의 다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이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 협약이 조지타운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인정했다. 문화유산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곳이 말라카 해협의 식민 역사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 준다는 것이다.

페낭을 들여다 보면 말레이 제도, 인도, 중국 및 유럽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서로 녹아들어 조지타운 고유의 건축 양식, 문화와 풍경을 창출해낸 모습이 보일 것이다.

# 페낭이라는 곳

##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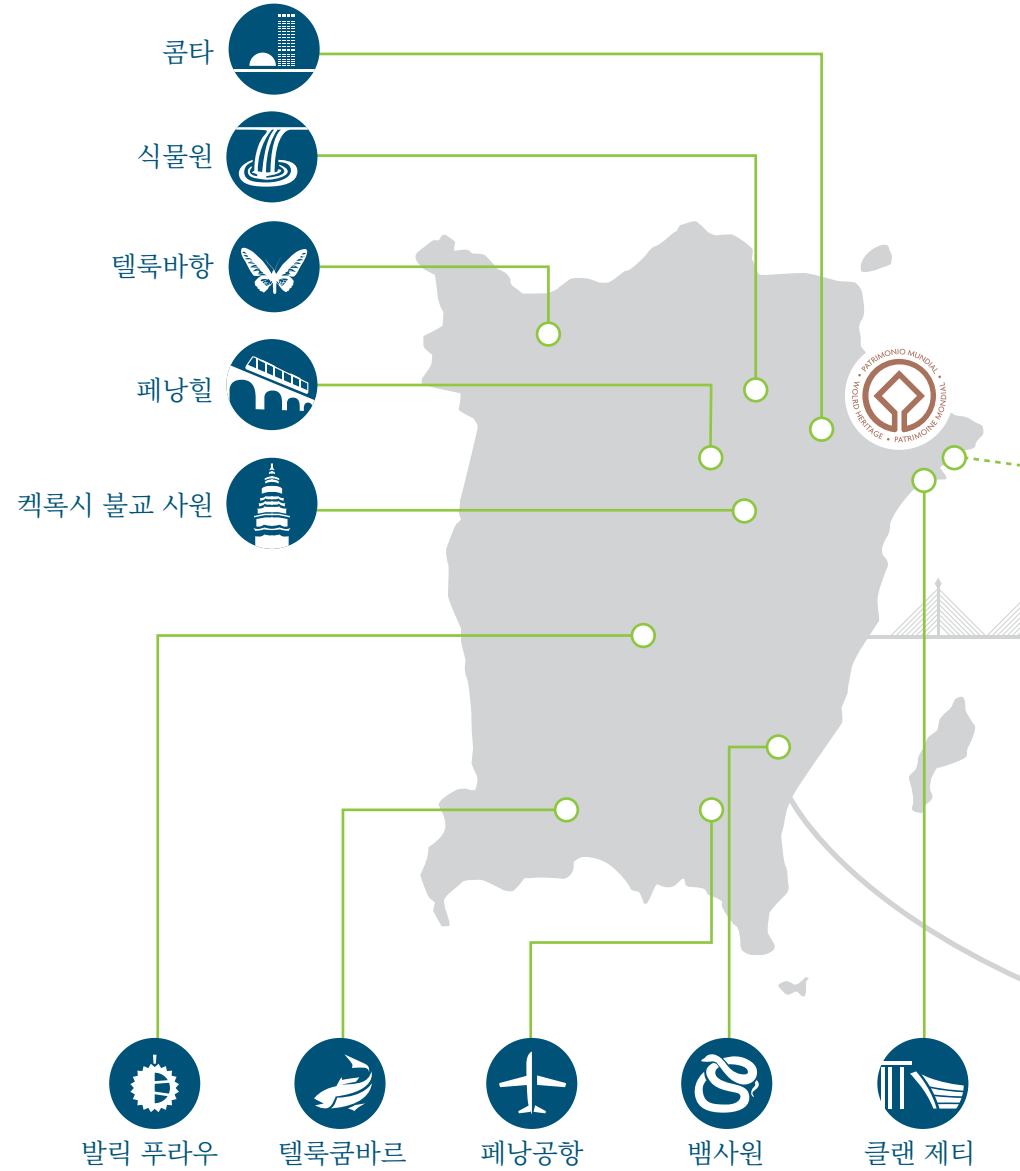
페낭주는 선박들이 지칠 줄 모르듯 다니는 말라카 해협 북단에 자리잡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비행기로 못 닿을 곳이 없고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관광지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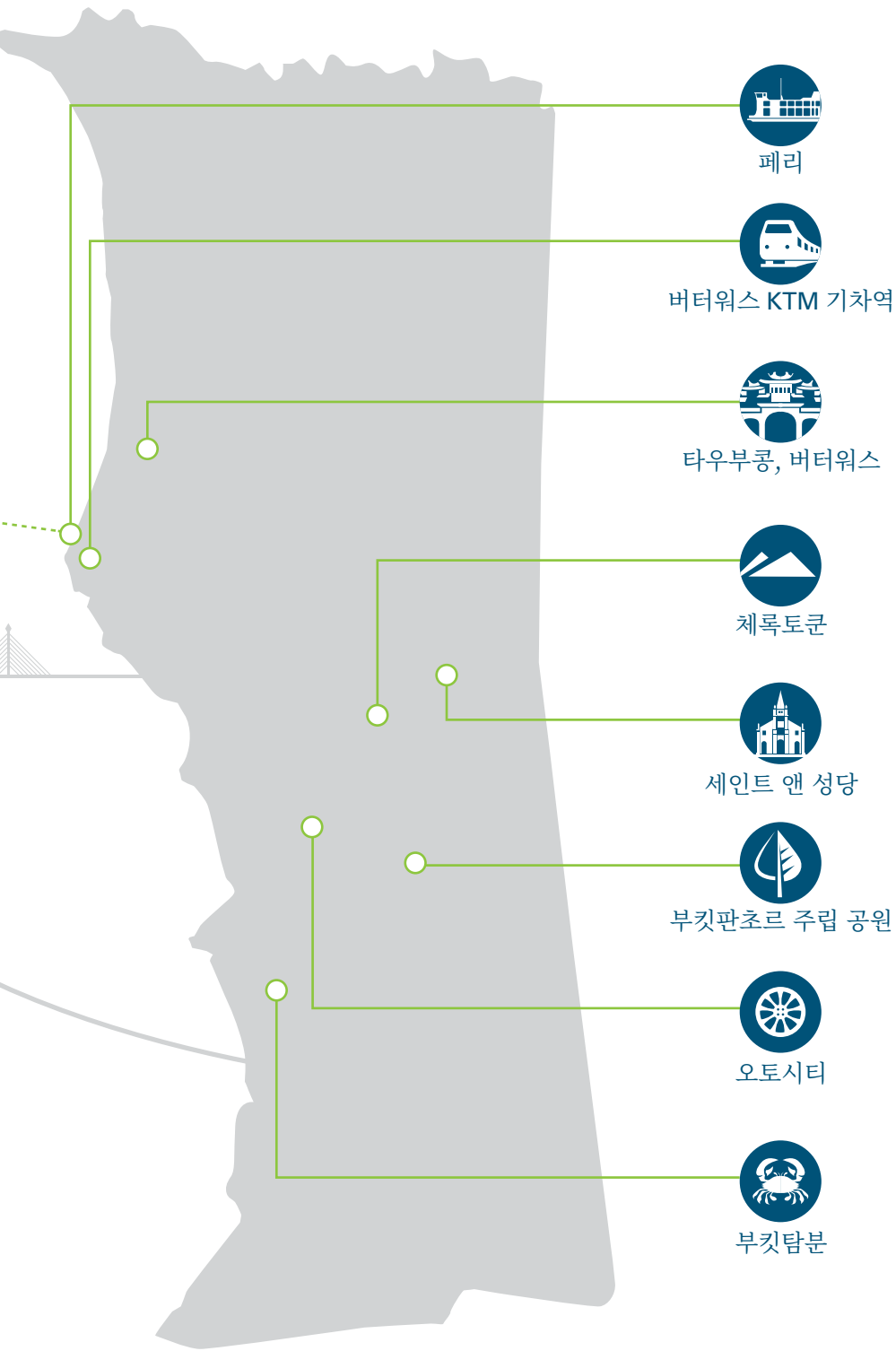
## 기후 |

열대 기후로 평년 기온은 21°C (70°F)에서 32°C (90°F)까지 이른다. 사월부터 구월까지는 남서 계절풍 기간인데 이때 잦은 우천이 썩는 듯한 무더위를 시원하게 퇴치한다.

## 화폐 단위 |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는 말레이시아 링깃(MYR)인데 미국 달러처럼 줄여서 링깃(RM)이라 부른다. 쇼핑물에 매일 영업하는 환전 창구가 있을 만큼 페낭에서 환전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요 화폐의 환전율이 잘 표시되어 있어 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 현금 말고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포함한 주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 | 언어

말레이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일상 언어와 비즈니스 언어로 영어도 널리 쓰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언어로 중국어, 타밀어와 페낭 호키엔과 같은 중국어 방언이 있다.

## | 비자

페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또는 여행 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경우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 | 인터넷

페낭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재까지 핫스팟이 약 1,550개가 되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 호텔, 카페와 쇼핑몰에서도 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세계와 연결된 페낭



## 페낭과 주요 아시아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 비행기: 국제선 운항 횟수

번	도시명	항공사	주 운항횟수
1	수완나폼 (방콕)	타이항공/스마일	7
2	돈므앙 (방콕)	에어아시아	7
3	푸켓	라이어플라이	4
4	홍콩	캐세이드래곤	11
5	싱가포르	에어아시아	28
		실크에어	31
		젯스타	14
		타이거	14
6	메단	에어아시아	24
		수리위자바에어	7
		라이언에어	21
7	자카르타	에어아시아	7
8	수라바야	에어아시아	3
9	반다아체	라이어플라이	4
10	광저우	중국남방	7
11	삐야	말린도	2
12	우한	말린도	2
13	쿤밍	력키에어	2
14	타이페이	중화항공	4
15	호치민시	에어아시아	4
<b>합계</b>			<b>203</b>

## 국내선 운항 횟수

번	도시명	항공사	주 운항횟수
1	조호르바루	에어아시아	21
2	코타키나발루	에어아시아	11
3	쿠알라룸푸르국제항공	에어아시아	76
		말레이시아항공	53
		말린도	26
4	쿠칭	에어아시아	10
5	코타바하루	라이어플라이	7
6	수방	라이어플라이	60
		말린도	104
7	랑카위	에어아시아	14
		라이어플라이	7
8	말라카	말린도	7
<b>합계</b>			<b>396</b>

출처: 말레이시아 공항 지주회사 (2017년 2월까지)  
기재된 내용은 인쇄 당시를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다.

### 출발지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러시아	베트남
바레인	덴마크	이란	케냐	오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스라엘	쿠웨이트	파키스탄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라오스	필리핀	우크라이나	
부탄	프랑스	일본	미얀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독일	요르단	북한	대한민국	영국	

### 방콕행

### 도하발

### 페낭행

### 쿠알라룸푸르행

### 싱가포르행

### 출발지

- 호주
- 부탄
- 중국
- 덴마크
- 피지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파푸아뉴기니
- 인도 (안다만 제도 포함)
- 인도네시아
- 이탈리아
- 일본
- 미얀마
- 뉴질랜드
- 필리핀
- 러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스페인과 카나리아 제도
- 스웨덴
- 스위스
- 동티모르
- 영국
- 미국
- 베트남

### 출발지

호주	인도네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터키
방글라데시	이라크	모리셔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이란	미얀마	카타르	영국
중국	일본	네팔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라오스	뉴질랜드	스리랑카	
인도 (안다만 제도 포함)	마카오	오만	태국	



# 페낭 그대로의 페낭



# 소중한 문화유산



1. 카피탄 갤링 모스크  
© Penang Global Tourism



2. 포트 콘월리스  
© 페낭 관광청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지 타운은 200년이 넘는 전전(戰前)의 건물이 가장 많이 보존되는 동남아시아 도시로 손꼽으며 소중한 건축적 유산으로 간주된다. 살아 있는 박물관에서 전통 장인들이 생업을 꾸리고 있다. 구석구석을 탐구하면 숨어 있는 옛 페낭의 비밀들을 발견할 것이다.



3. 켉록시  
© 페낭 관광청

- 1 카피탄 켈링 모스크는 1801년에 페낭에 온 첫 인디언 무슬림 정착자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청동으로 만든 초승달과 별로 장식된 무갈식 돔, 그리고 무어식의 아치와 탑이 특징이다.
- 2 북동쪽 해안의 곳에 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포트 콘월리스 요새는 1786년에 식민지 페낭을 설립한 프란시스 라이트 대령에 의해 지어졌다. 조지 타운에 자리잡으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요새이다. 건물 안에 보관되는 대포는 1603년에 만든 것을 복구한 것이다.
- 3 1891년에 아이르 이맘의 한 언덕 위에 지어졌다. 만불탑 파고다와 높이 36.5m의 관음 동상을 자랑하는 켉록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기도 하다.

# 활기찬 문화



1. 타이푸삼  
© Sherwynd Rylan Kessler



2. “송꼭” 제조공  
© 페낭 관광청

페낭은 다양성을 품고 숨 쉬고 있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의 문화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는 희귀문화를 가진 페라나칸 또는 토생 중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 전통 장인과 세계 유명한 벽화 문화가 보여주는 예술도 곳곳에 스며 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페낭의 색다른 이야기꽃이 필 것이다.



3. 수제 향 제조공  
© 페낭 관광청

- 1 흰두교 신도들이 타밀 달력의 열 번째 달 보름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공휴일로 선정된 이 날은 그들이 무루간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축제 타이푸삼이기 때문이다. 축제 기간에는 신도들이 카바디라는 짐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2 하자 모히딘은 “송꼭”이라는 말레이 전통 남성 모자를 만드는 조지 타운의 마지막 장인이다. 모히딘은 나고레 이슬람 성전 안에 위치하는 가게에서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 3 87세 된 향 제조공 리벵추안부터 도장 조각공과 서예가 응차이티암까지, 페낭은 수많은 전통 차이나스 상인이 조상의 생업유산을 이어받아 21세기에도 계속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노냐의 구슬 달린 신발 제조, 간판에 중국어 글자를 세기고 금박을 입히는 작업, 그리고 중국식 장례식이나 종교 축제 때 태울 종이공물 제조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 매력적인 전통



1. 클랜 제티  
© Sherwynd Rylan Kessler



2. 사자춤 @ 에스플러네이드  
© Sherwynd Rylan Kessler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페낭으로 돌아간다. 북적거리는 국제 도시 페낭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고층 아파트와 세계 유산 사이에 숨 쉬고 있는 전통 직업과 독립 이전의 생활양식이 그것들이다.

1 클랜 제티는 약 백 년 전에 해안가에서 건설된 수상마을이다. 중국 씨족 별로 형성된 일곱 개의 제티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섯 개만 남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상가옥과 가장 긴 해상보도를 자랑하는 주(周) 씨 제티를 가장 많이 찾아가다.

2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다가 아슬아슬 높은 기둥 사이에서 날뛰는 사자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쫄깃해진다. 마음깊숙히까지 두드리는 북소리, 화려한 축제 분위기와 신나는 스타일이 행사의 흥을 돋우는 최강력한 힘들이다. 공연이 끝났어도 북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 것이다.





2. 아쌈 락사  
© 페낭 관광청

아시아의 요리 전통이 깃들어 있는 길거리 음식, 전통 커피숍, 카페, 알콤달콤한 가족식당,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페낭 먹거리가 미각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숯불에 넓적한 쌀국수와 통통한 새우, 아삭아삭한 콩나물, 꼬막, 계란, 어묵 그리고 가정표 양념을 볶아 만든 볶음 쌀국수를 놓치면 안 된다. 달콤한 것을 원한다면 종료당 시럽이 흘러 내리는 빙수위에 열대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얹는 아이스크림이 필수이다!



3. 뇨냐 과자  
© Sherwynd Rylan Kessler

- 1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때문에 페낭을 찾는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차림이 소박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페낭 길거리 음식은 현지인과 관광객의 인기 선택이다. 페낭까지 와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지 않으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 2 새콤매콤한 생선 육수에 먹는 국수로 먹고 또 먹고 싶은 아쌈 락사는 CNNGo's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50위 내에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마린드 주스와 아쌈 망고스틴이 가미되어 톡 쏘는 맛이 난다.
- 3 뇨냐 과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장식된 한 입 크기의 별미이다. 뇨냐 과자의 강력한 맛과 전통의 조합은 혼합 문화인 바바 뇨냐 또는 페라나칸 문화에서 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 푸른 자연



1. 커티스 크레스트 트리탑 보도  
© 더 해비타트 페낭 힐



2. 워터가든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



3. 엔토피아  
 ©페낭 나비 농장

페낭의 비밀정원, 자연 공원과 보호 산림으로 피신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녹색지구를 체험할 수 있다. 식물원에서 여유있게 산책하거나 산길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가 하면 검은 잎 원숭이와 긴 꼬리 원숭이가 같이 노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 다니는 물총새, 흰 꼬리 수리와 연도 볼 수 있다. 페낭 국립공원의 별하늘 밑에서 캠핑도 해보고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을 방문하거나 나비 농장에서 벌레에 대해서도 배워본다.

- 1 세계 최상급의 생태 관광지인 더 해비타트 페낭 힐은 생태적인 소리와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곳으로 페낭의 열대 우림, 화강암 바위와 야생 동식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 2 상을 받은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은 넓이가 약 9800평이 된 이차림이다. 약 500종의 야생 동식물에 둘러 쌓인 이 곳은 개울 건너기와 폭포를 즐길 수 있는 세 개의 정원 코스로 구성된다.
- 3 엔토피아 나비 농장은 동물 전체 종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무척추 동물을 위해 만든 곳이다. 엔토피아는 동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비바리움 더 네이처랜드(The Natureland)와 실내 전시관 더 코쿰(The Cocoon) 두 개의 신세계로 구성된다.



# 폭넓은 장소 선택



# 빛나는 식민 역사



1. 서포크 하우스  
© Sherwynd Rylan Kessler



2. 데이비드 브라운 레스토랑  
© 데이비드 브라운



3. 로얄 칠란 페낭  
© The Royale Chulan Penang



4. 이스턴 앤드 오리엔탈 호텔  
© The Eastern & Oriental Hotel

페낭의 휘황찬란한 식민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본다. 절제하기로 유명한 풍요로움, 진수성찬과 우아한 여흥으로 완성된 나른한 화원 파티가 눈 앞에 펼쳐지는데.

- 1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지언 양식의 가옥으로 서포크 하우스는 페낭과 해협식민지를 관리하는 영국 총독들의 거처이다. 앵글로 인디언 양식을 살리는 식민지 인도의 가든하우스 형태를 갖춘 이 가옥은 정통 앵글로 인디언 골동품으로 재단장되어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 2 페낭힐 정상의 스트로베리힐에 자리잡은 데이비드 브라운은 전형의 영국 식민지풍 레스토랑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전망이 굉장한 곳으로 탈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알맞은 장소이다.
- 3 아름다운 페낭 앞바다에는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로얄 칠란 페낭이 있다. 124년 역사를 가진 이 호텔은 현대의 호화로움과 고풍스러운 매력을 한몸에 받아 조지타운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구역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 4 문학의 거장 서머셋 모음, 리더드 키플링과 헤르만 헤세가 이상적인 호텔에 남긴 발길을 따라본다. 세월이 지나도 이스턴 앤드 오리엔탈 호텔의 호화로운 장식과 우아한 분위기가 변함이 없다.

# 화려한 정원

1. 데이비드 브라운 레스토랑  
© Sherwynd Rylan Kessler





2.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  
©Tropical Spice Garden

일년 내내 따뜻한 열대 기후가 아름다운 정원, 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파릇하게 우거진 초목으로 뒤덮이며 열대 지방의 꽃이 알록달록 피는 정원들은 최고의 행사장이 될 것이다.



3. 데이비드 브라운 레스토랑  
©데이비드 브라운

- 1 & 3 역사가 깊은 다비드 브라운 레스토랑은 깔끔한 영국풍 조경에 둘러 쌓여 꿈꾸던 화원 파티를 현실로 만든다. 스트로베리힐의 정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밤이 되면 반짝거리는 페낭 전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2 남다르고 독특한 행사를 원한다면 이국적인 말레이시아산 허브와 선명한 빛깔의 야생화 천국인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만큼 좋을 곳도 없을 것이다. 전시관의 유리벽을 통해 열대 우림에 에워싸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특 트인 텔룩바항의 숨 막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매력



1. 포트 콘월리스  
© Sherwynd Rylan Kessler



2. 블루 맨션  
© Sherwynd Rylan Kessler



3. 블랙 캐틀 카페  
© Sherwynd Rylan Kessler

- 1 프란시스 라이트가 페낭을 해적과 커다의 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은 포트 콘월리스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요새이다. 한때 페낭의 빛났던 해양 역사를 지켜보던 이 건물은 오늘날 경축 행사, 테마 만찬과 문화 공연의 인기 행사장으로 변신했다.
- 2 정교한 중국식 디자인에 유럽의 원소가 가미된 건축 양식이 페낭의 상징인 블루 맨션의 특징이다. 수많은 국제 영화가 유네스코 문화 유산 보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블루 맨션에서 촬영됐다. 화려하게 꾸며진 객실과 홀이 이 집 옛주인의 튼튼한 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 3 해협 절충주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건축 양식이 하나가 되는 건축 형태를 말한다. 용어가 생긴 만큼 페낭 전전(戰前) 시대의 솽하우스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니고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된 이 건물들은 세련되게 재단장되어 편안한 저녁 식사, 각테일 파티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전전(戰前)의 건물이 가장 많이 보존되는 도시로 손꼽는 페낭의 유형 문화재는 다문화적 역사가 남긴 유산이다. 시기가 다르며 중국 남쪽 지방, 인디언 무슬림, 앵글로 인디언과 인도말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가 깃든 건축 양식과 디자인들이 모두 한 골목에 모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중국 광동의 유리 세공, 스코틀랜드의 철공, 빅토리아 시대의 바닥 타일과 아르 누보의 양식을 융합하는 진정한 예술 작품들이 있다.

# 고급 리조트

1. 파크로얄 페낭 리조트  
© PARKROYAL Penang Resort





2. 페낭 볼룸  
© 호텔 젠



3. 바투 바  
© 론 파인 호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투 페링기 비치의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의 최고의 호텔과 리조트가 소재하는 곳이다. 1  
초고급의 샹그릴라 라사 사얏 리조트와 말레이시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드 록 호텔부터 파크로얄 페낭 리조트  
(사진 참조)까지, 놀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고급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을 자랑하는 조지타운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행사 2  
장소이다. 조지타운의 전략적 위치가 현대 시설을 갖춘 시내 호텔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슴이 설레는 이벤트  
계획들을 성사시킨다.

설 줄 모르고 밤마다 호텔과 리조트의 엔터테인먼트 라운지나 바에 펼쳐진 하우스 밴드, 초빙한 재즈 음악가 그리고 3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 공연이야말로 마음을 사로잡고 긴장을 풀게 하는 페낭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이다.

최선이 아니면 시작하지도 말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멋진 경치와 1  
흠 잡을 데 없는 서비스로 손님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행사장이  
바로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다. 페낭의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과  
리조트들이 초대 손님들의 모든 요구에 맞춰 업무와 여가가 병행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곳이 백사장이 되든 문화 도시나 우거진 숲이 되든  
호강스러운 삶이 당신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 컨벤션의 집합점



1. 세티아 스파이스 컨벤션 센터  
@세티아 스파이스

SETIA SPICE CONVENTION CENTRE



2. 스트레이츠퀴  
© Sherwynd Rylan Kessler

이왕이면 다홍치마!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를 주최한다면 페낭의 컨벤션 센터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페낭 최신식의 컨벤션 센터와 공연장들은 수많은 손님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완비되어 있다. 전문 장비와 컨벤션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행사의 대성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 1 페낭 지하 인터네셔널 컨벤션 및 전시 센터(SPICE)는 비즈니스와 레저가 하나로 통합된 허브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컨벤션 센터 중의 하나이다. 컨벤션 센터, 실내 경기장, 상점 및 음식점, 실내 수영장과 곧 생길 4성급 호텔로 구성되어 편리성이 최대로 보장된다.
- 2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해변 컨벤션 센터 “스트레이츠퀴 컨벤션 센터”가 차지하는 711평의 공간은 성대한 행사를 위해 바쳐져 있다. 스트레이츠퀴의 음식점과 상점이 한 지붕에 있으며 탄중 봉아의 호텔과 리조트가 가까이 있다.

# 도시의 우아함



1. 더 플레이스, 라자 우다  
© Sherwynd Rylan Kess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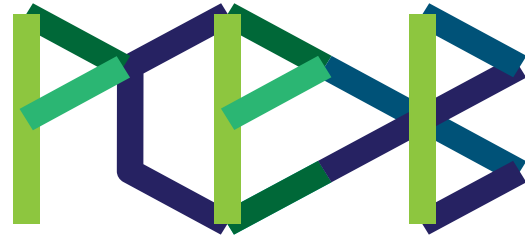
2. 처치 스트리트 피어  
© 페낭 관광청

예술! 음악! 공연! 문화! 모두 하나가 되어 꿈이 실현되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기본적인 건축 양식과 세련된 스타일이 섞여 조성한 원초적이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코스모폴리탄 행사에 거부할 수 없는 신비감을 첨가한다.



3. 힌 버스차고지  
© Hin Bus Depot

- 1 적나라한 콘크리트 벽과 상 받은 빛조형물 “더 스타”와 함께 더 플레이스 라자 우다에서 예술을 만끽해 본다. 예술 전시회부터 패션쇼와 축제까지 모든 행사가 이곳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2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는 이 선착장의 바다 풍경이 해프닝이 일어날 무대가 되었다. 조지타운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에 못지않게 우아한 건축 양식을 가진 처치 스트리트 피어는 현대식의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즐겨찾는 장소이다.
- 3 첫눈에 속면 안 된다. 벽이 벗겨지고 회반죽이 허물어진 힌 버스차고지는 장치 트렌드에 앞서 있는 곳이 될 장소이다.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벽화 예술가 어니스트 자카레빅의 손길에 생명을 되찾으며 이곳의 세련된 분위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약된다.



penang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 | PCEB 에 대하여

페낭 컨벤션 및 전시국(PCEB)는 페낭주의 산하 기구로 2016년에 페낭의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페낭을 비즈니스 행사를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행사 장소로 추진하는 것이 PCEB의 주된 목적이다. 풍부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활기찬 다문화 사회, 최신식의 시설과 생기가 넘치는 자연 명소를 통해 페낭은 이 열대 나라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PCEB는 페낭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즈니스 행사의 합동센터가 되어 기획의 각 단계에서 단체 또는 이벤트 기획자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PCEB의 팀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 컨벤션 센터 그리고 독특한 행사장과 협력하여 대소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장해 준다. PCEB의 목표는 의뢰인의 이벤트 개최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현지의 MICE사업이 가져다 줄 유익한 경제적 효과를 확대하는 데에 있다.





penang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No. 14A & 16A (First Floor)  
The Whiteaways Arcade,  
Lebuh Pantai, George Town,  
10300 Penang,  
MALAYSIA

**T** / +604 261 6161  
**F** / +604 261 6171  
**E** / [info@pceb.my](mailto:info@pceb.my)  
**W** / [www.pceb.my](http://www.pceb.my)

*PCEB is a member of*



표지 그림:  
페낭힐에서 바라보는 페낭섬과  
세베랑 프라이 전경

